별 걸 다 보여주는 매크로

정책 기류 변곡점과 드러나는 구조적 균열

김호정 Economist
02 3770 3630
hojung.kim@yuantakorea.com

임지윤 Research Assistant
02 3770 3527
jiyoon.lim@yuantakorea.com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01 별걸 다 보여주는 매크로

연준 내 분열과 차기 의장 인선, 그리고 유동성 정책의 구조적 전환(1)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정책 경로를 둘러싼 내부 분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대다수 위원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안정**을 근거로 **12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명확한 비둘기파적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지역 연은 총재들 상당수는 여전히 매파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데일리 총재는 노동시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비선형적 충격 위험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재차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월러 이사는 CPI·PCE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고용 악화가 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12월 인하를 지지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그는 "고용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낮고, 특정 산업군에 고용 집중이 왜곡되고 있다"고 덧붙였고, 관세효과를 제외한 실제 인플레이션은 2.4~2.5% 수준이라고 언급해 통화정책의 여유 공간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연준 내부 갈등에 구조적 해석을 더한다. 그는 공개적으로 "연준은 이제 뒤로 물러날 시점"이라고 언급했으며, **지역 연은 총재들의 과도한 발언과 시장 교란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현재의 **'Ample Reserve 체제'**, 즉 준비금 기반의 직접적 금리 통제 시스템 역시 과도한 중앙은행 개입 구조라며 **단순화(simplification)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연준의 권한 축소와 정치적 통제 회복 의지가 함께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발언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케빈 해싯(Kevin Hassett)**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12/25) 전에 지명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해싯은 트럼프 정부 시절 2017년 법인세 감세의 설계자였으며,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대표주자다. 그는 금리를 **투자 촉진 수단**으로 재해석하며, Fed가 자본 배분을 조정하는 전략적 기관이 돼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보다는 정부 정책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의 정책관이 현실화될 경우, Fed는 기존 물가와 고용을 중시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내 분열과 차기 의장 인선, 그리고 유동성 정책의 구조적 전환(2)

기준	제롬 파월	케빈 해싯
정책 성격	데이터 의존적 기조유지	공급확장 기반 성장 전략 운영
접근 방식	물가 안정 우선의 신중한 접근	성장·투자·고용 중심 접근
Fed 역할 인식	기능적·전통적 중앙은행 관점	산업정책과 연계 가능한 전략적 중앙은행 관점
정치적 성격	정치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 중시	정부 정책과의 전략적 조율 및 결합 가능성
리스크 요인	사후적 판단에 따른 대응 지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가능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제로 해싯은 최근 인터뷰에서 **AI는 단기적으로 노동 수요를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소득을 높여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평가했다. 이는 기술발 경제의 충격을 물가보다 고용과 성장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기존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정책과는 거리를 둔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은 곧 **연준의 유동성 정책 구조가 변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최근 연준이 언급한 **단기국채(T-bill) 매입 재개 가능성**은 표면적으로는 지준 안정이라는 기술적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과 결합될 경우 시장 유동성에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재무부는 장기채 발행량을 축소하고 단기채 발행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단기물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재무부는 자연스럽게 발행구조를 단기 중심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커지며 장기물 공급 압력은 완화된다. 이는 장기금리에 하방 압력을 형성해 텀프리미엄 안정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술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매입 행위가 금융완화 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연준 내 발언과 의장 교체 이슈는 단순한 매파 vs 비둘기파 논쟁을 넘어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의 데이터 의존적 금리 조정은 정치-재정-산업 전략과 연동된 정책기조로 재편될 수 있으며, 연준은 유동성 공급자라기보다는 자본배분 조율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시장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정책 기대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01 별걸 다 보여주는 매크로

9월 PPI: 에너지발 반등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3%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며, 8월(-0.1%)의 둔화에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상승의 대부분은 **휘발유 가격 급등(+11.8%)**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항목이 주도하고 있어, 헤드라인 반등이 수요 기반 물가압력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1%에 그치며 단기 흐름의 뚜렷한 둔화를 확인했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상품 가격(Core Goods)은 전월 대비 +0.2%를 기록하며 재차 연중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반면, **전체 상품(Headline Goods)** 가격은 +0.9% 급등했는데, 이 상승분의 약 60%가 휘발유(+11.8%) 단일 항목의 상승에 기인했다.

이는 기업들의 에너지 투입 비용 부담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 이를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하는 비전가(Non-pass-through) 구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 및 물류비 재상승 압력 속에서도, 기업들은 마진 축소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모습이다.

서비스 물가도 전월 대비 0.0%로 사실상 정체되며 CPI에서 확인된 서비스 물가 둔화 흐름과 일치한다. 항공료(+4.0%)와 요양시설(+0.7%) 등 일부 항목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유통 마진(-0.2%), 병원 외래 서비스(-0.4%), 포트폴리오 관리(-1.2%)는 하락해 전체적으로 상·하방 요인이 뒤섞인 모습이다. 이를 PCE 반영 항목 기준으로 재구성하면, 헬스케어(병원·요양시설 등)는 비교적 견조하고 항공료는 큰 폭 상승했으나, 금융·의료 서비스의 가격 조정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하방 압력의 혼재를 감안하면, 이번주 발표될 9월 PCE는 시장 예상치(2.8%)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승하더라도 보합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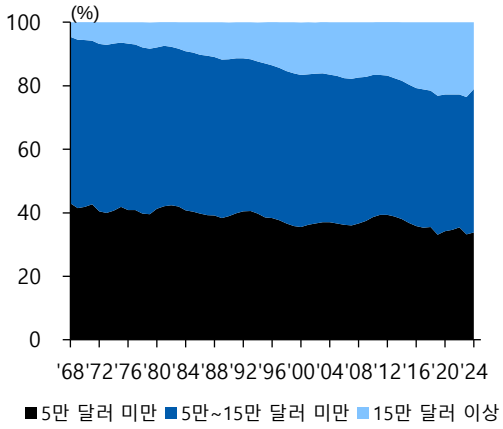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9월 PPI는 헤드라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조가 확인되었고, 기업들의 가격 전가 행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는 수요 둔화 우려와 관세 전가의 한계, 기업 마진 축소와 같은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물가가 재차 가속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베이지북과 소매판매: K자형 소비 분화가 심화되는 모습(1)

이번 베이지북(10월 초~11월 17일)은 고용·소비·가격·기업 활동 전반에서 둔화 신호가 한 단계 더 명확해진 보고서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용 평가가 직전의 **"대체로 안정적(stable)"**에서 이번에는 **"소폭 감소(employment declined slightly)"**로 내려앉았다는 점이다. 약 절반의 연은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약화된 것으로 보고됐고, 신규 채용 동결 및 자연 감소(backfilling 조절) 방식의 완만한 인력 축소가 광범위하게 관찰됐다. 이는 아직 전형적 침체 국면의 해고 폭증은 아니지만, 기업이 고용 확대를 멈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지표의 하방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일부 기업은 "AI 도입이 초급직을 대체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내며, 노동 수요의 구조적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소비 부문에서는 'K자형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다. 뉴욕·애틀랜타·미니애폴리스 연은 등 상당수 지역이 고소득층의 소비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저소득층의 재량지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인구조사국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2024년 기준 **미국 중산층**(소득 5만~15만 달러)은 사상 최저인 **45.2%**까지 축소된 반면,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3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은 **21.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 가구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은 줄어드는 중



자료: U.S. Census Bureau,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즉, 중산층이 상층과 하층으로 갈라지는 소득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적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이 상층으로 이동해서 소비 여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주거·보육·헬스케어·세금 등 필수 생계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조차 안정적 소비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기본 생계비는 연 13만~15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두 명이 풀타임으로 일해도 중산층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01 별걸 다 보여주는 매크로

베이지북과 소매판매: K자형 소비 분화가 심화되는 모습(2)

이러한 소비 양극화 흐름은 9월 소매판매에서도 확인된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에 그치며 5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도 +0.3%로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GDP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소매판매 통제그룹(control group)'은 -0.1%**로 전월 수치까지 하향 수정되며 실질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품목별로 보면 전자제품·의류 등 경기 민감 품목에서 판매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중·저소득층의 가격 민감도 확대와 관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다만 노동절 프로모션 영향으로 가구 판매가 예외적으로 반등하는 등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단발적 강세가 일부 남아 있었으나, 구조적 소비 피로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국 현재의 미국 소비·고용·가격 구조는 완만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중·저소득층의 소비 위축, 인력 충원 축소, 관세·생계비 부담에 따른 수요 탄력성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기는 '둔화 압력이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지지할 여지는 있으나, 그 효과는 계층 간 소비 여력 차이로 인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소비 반등의 폭이 좁아지는 가운데 결국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완화 쪽으로 기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01 별걸 다 보여주는 매크로

단순 부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미국 소비자심리 쇼크

11월 컨퍼런스보드(CB) 소비자심리는 88.7을 기록하며 컨센서스(93.5)를 대폭 하회했다. 10월(95.5) 대비 -6.8pt 하락한 수치 이자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소매판매 부진에 이어 **소비 심리마저 꺾이며 경기 둔화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기대' 소멸, '고용' 불안 확산이 드러난다.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현재여건지수는 126.9로 10월(131.2)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문제는 6개월 후 경기를 전망하는 기대지수는 63.2를 기록하며 10월(71.8)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부분이다. 장기 평균에서 기대지수 80 하회는 경기 우려의 시그널로 60 하회는 경기침체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레벨인데, **이번 수치는 그 기준선에 다가서며 미국 가계가 체감하는 미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심리 하락을 주도한 것은 노동 시장에 대한 자신감 약화가 주요했다.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27.6%로 전월(28.6%) 대비 감소한 반면,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증가했다. 이 두 응답의 차이인 '노동시장 격차'의 축소는 실업률 상승에 약 3개월 선행하는 지표로, 향후 실업률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용 둔화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향후 6개월 내 주택,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관련된 **심리 위축은 저소득층을 넘어 연봉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과 35~54세 핵심 경제활동인구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의 서술형 응답에서는 가계 생활비 부담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연방 정부 셧다운 이슈가 빈번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가계가 향후 경제적 충격 발생을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추가로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15.3%)은 줄어들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13.8%)은 늘어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01 별걸 다 보여주는 매크로

소비지출 감소와 가계심리 하락의 동조화

이번 11월 CB 소비자신뢰지수 급락은 앞서 발표된 9월 소매판매의 컨트롤 그룹 역성장(-0.1%)이 일시적 노이즈가 아닌, 추세적 하강의 시작점임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심리지표(Soft Data)는 선행성을, 실물지표(Hard Data)는 후행성을 갖는데, 현재 두 지표가 동조화되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가계심리와 소비지출은 4~5개월 시차를 두고 0.3~0.4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현재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0.6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즉각적인 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2월 이후 기대지수가 10개월 연속 80을 하회하는 동안에도 소매판매는 버텼으나, 이제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가계의 초과 저축과 자산효과라는 버퍼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CB 소비자심리의 기대지수 급락은 가계의 '지출 의지' 마저 이전과 같이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초과 저축'과 '견조한 고용'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번 데이터는 단순한 소비 동향의 등락이 아닌, 내수 펀더멘털의 훼손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결국 수요측면에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연준(Fed)의 12월과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요인이다.

Appendix

미국 도소매상의 비용 관련 처리 방식과 물가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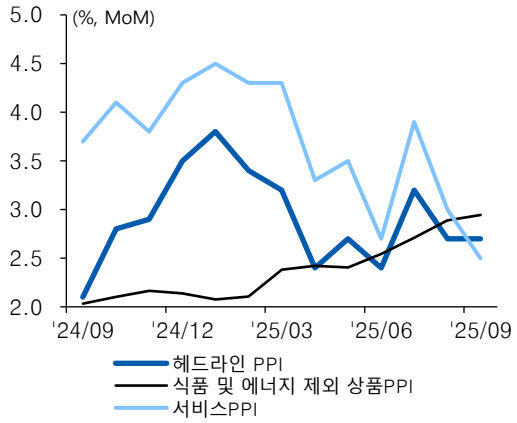
분류	항목	8월 MoM (%)	9월 MoM (%)	전월 대비 변화
1.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비용 전가한 항목	Apparel 도매	1.3	4.3	F/W 시즌 진입 물량 공급하며 물류비/원가 상승분 강하게 전가
	Food & Alcohol 도매	-1.3	3.3	농산물(소고기PPI +15.8% 등) 원가 상승분을 소매상에 전가 성공
	Chemicals 도매	-1.8	2.6	기초 화학제품 가격 반등에 맞춰 마진 정상화 시도
2. 도매상이 비용 증가를 마진에 흡수한 항목	Machinery & Vehicle 도매	-3.6	-4.8	수요 둔화 및 재고 부담으로 2개월 연속 마진 흡수
	Machinery Parts 도매	-2.1	-3.0	산업생산 둔화 영향, 부품단에서 가격 인하 압력 지속
	Paper & Plastics 도매	-2.7	-2.6	포장재 수요 부진 지속, 2개월 연속 마진 축소로 비용 흡수
3.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한 항목	TV, Video & Photo 소매	-8.7	12.9	노동절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마진 급등
	Computer HW/SW 소매	3.1	7.0	IT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견조, 강력한 가격 결정력 유지
	Fuels & Lubricants 소매	-0.7	1.5	휘발유 도매가(+11.8%) 폭등분을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전가)
	Building Materials 소매	-0.5	2.3	주택 보수 수요 발생(허리케인 등 계절성)으로 비용 전가 용이
4. 소매상이 비용 증가를 마진에 흡수한 항목	Automobiles 소매	0.3	-10.6	9월 특수성 재고 처리를 위한 딜러사들의 공격적인 인센티브/할인
	Apparel & Jewelry 소매	2.1	-2.4	도매가는 올랐으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매단에선 할인 판매
	Sporting Goods 소매	3.8	-3.8	경기 민감 소비재 수요 둔화, 전월 일시 상승 후 다시 마진 반납
	Food & Alcohol 소매	-1.6	-0.1	도매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가하지 못하고 마진 횡보

상품 단계별 분류와 물가 압력

Stage	Category	Subcategory	8월 MoM (%)	9월 MoM (%)	전월 대비 변화
Stage 1	Headline	Stage 1의 중간 수요	0.0	0.4	초기 단계 투입 원가 부담 가중
	Goods	에너지 관련 상품	-1.7	1.1	Stage 1 상품생산용 에너지 비용 상승
	Goods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0.7	0.5	근원 상품 물가 상승세 유지
	Services	도소매·운송 제외 서비스	0.0	0.0	기업 서비스 비용 안정세
Stage 2	Headline	Stage 2의 중간 수요	-0.7	-0.1	에너지 가격 급락세 진정되며 낙폭 축소
	Goods	에너지 관련 상품	-4.6	-2.4	천연가스 등 원자재 하락 영향 잔존
	Goods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0.4	0.6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 반등 압력
	Services	도소매·운송 제외 서비스	0.3	-0.3	서비스 생산 투입 비용 일시적 감소
Stage 3	Headline	Stage 3의 중간 수요	0.0	0.3	Stage 2의 하락세 딛고 반등
	Goods	식품	-0.8	1.5	Stage 3 식품 가공 단계 가격 급등
	Goods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0.4	-0.2	근원 상품 가격 소폭 조정
	Services	도소매·운송 제외 서비스	0.2	0.1	완만한 서비스 물가 상승세
Stage 4	Headline	Stage 4의 중간 수요	0.2	0.2	최종 수요 직전 단계의 견조한 물가 흐름
	Goods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0.6	0.4	최종재 근원 상품 물가 상승 압력 소폭 완화
	Services	도소매·운송 제외 서비스	0.3	0.5	최종 서비스 단계 비용 상승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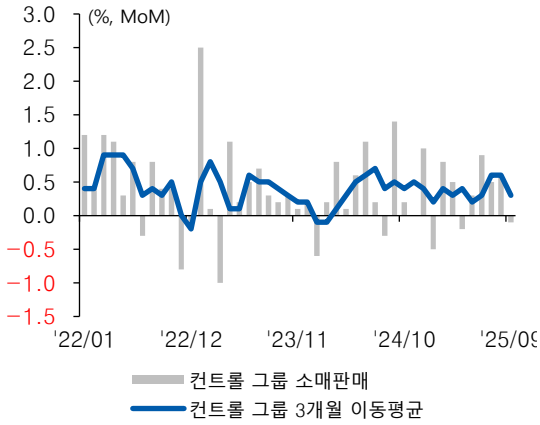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9월 헤드라인 PPI와 서비스 PPI는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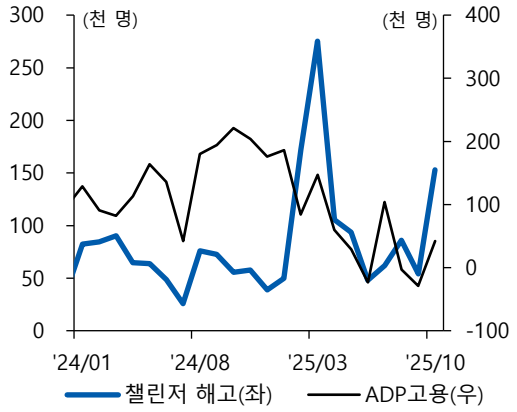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9월 미국 소매판매는 MoM +0.2%를 기록하며 컨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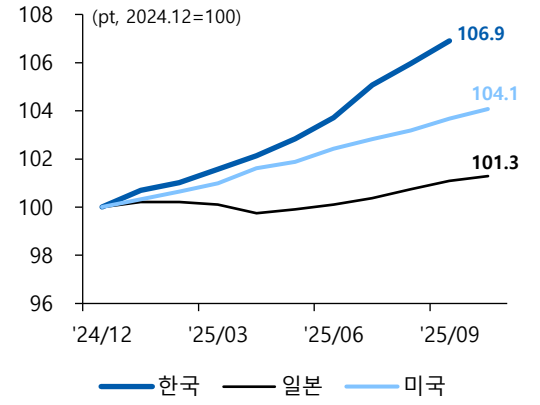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0월 챌린저 해고 수치는 15만 3천 명으로 급등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9월 한국의 M2 통화량은 작년 연말 대비 약 7% 증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난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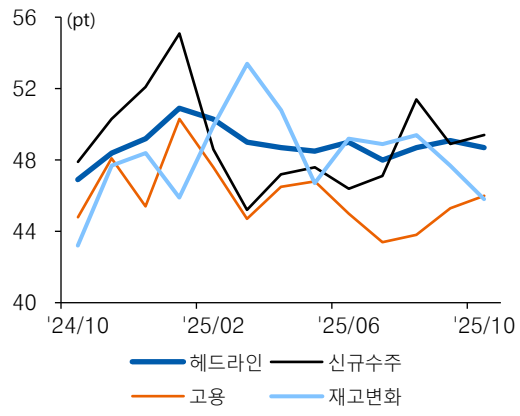
발표일자 (한국시간 기준)	국가	경제지표 (이벤트)	기간	예상치	발표치	이전치
11월 25일(화)	미국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11월	-2.0	-10.4	-5.0
	미국	PPI MoM	9월	0.3%	0.3%	-0.1%
	미국	소매판매 MoM	9월	0.4%	0.2%	0.6%
	미국	FHFA 주택가격지수 MoM	9월	0.2%	0.0%	0.4%
11월 26일(수)	미국	기업재고 MoM	8월	0.0%	0.0%	0.1%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11월	93.3	88.7	95.5
	미국	미결주택매매 MoM	10월	0.2%	1.9%	0.1%
11월 27일(목)	한국	11월 금통위	11월 27일	2.50%	2.50%	2.50%
11월 28일(금)	일본	도쿄CPI YoY	11월	2.7%	2.7%	2.8%

주: A 예비치, P 잠정치, F 확정치

11월 한국 수출 발표 예정(컨센: 5.4%, 이전치: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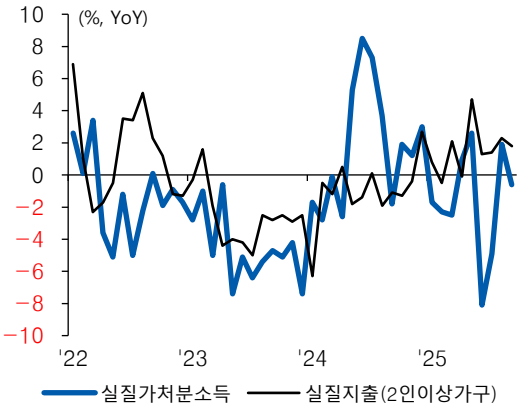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1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이전치: 50.6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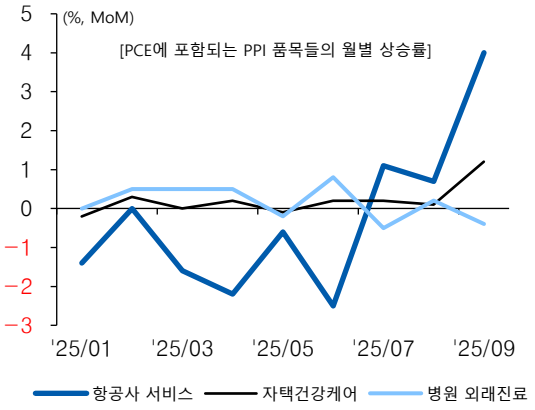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0월 일본 가계소비 발표 예정(컨센: 1.0%, 이전치: 1.8%)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9월 미국 PCE 물가지수 발표 예정(컨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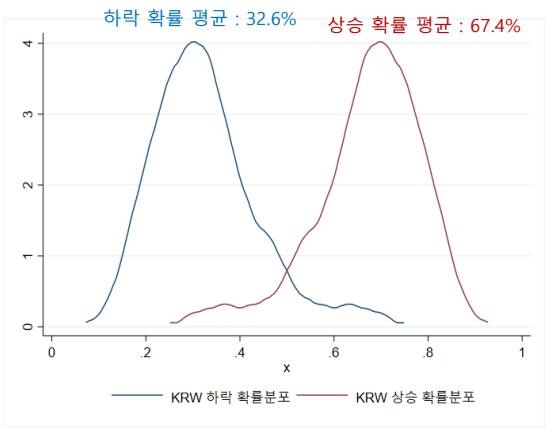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번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일자 (한국시간 기준)	국가	경제지표 (이벤트)	기간	예상치	발표치	이전치
12월 1일(월)	한국	수출 YoY	11월	5.4%	-	3.6%
	중국	레이팅독 제조업 PMI	11월	50.5	-	50.6
12월 2일(화)	미국	ISM 제조업 PMI	11월	49.0	-	48.7
	일본	소비자기대지수	11월	36.2	-	35.8
12월 4일(목)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1월	52.0	-	52.4
12월 5일(금)	한국	경상수지	10월	-	-	$13.47b
	일본	가계 소비지출 YoY	10월	1.0%	-	1.8%
12월 6일(토)	미국	PCE 물가지수 MoM	9월	0.3%	-	0.3%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12월 P	52.0	-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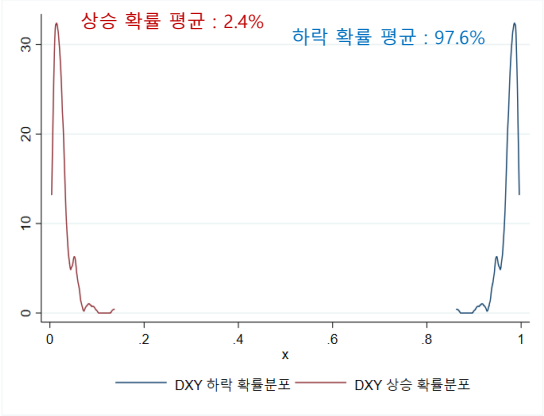
주: A 예비치, P 잠정치, F 확정치

다음주 KRW 상승/하락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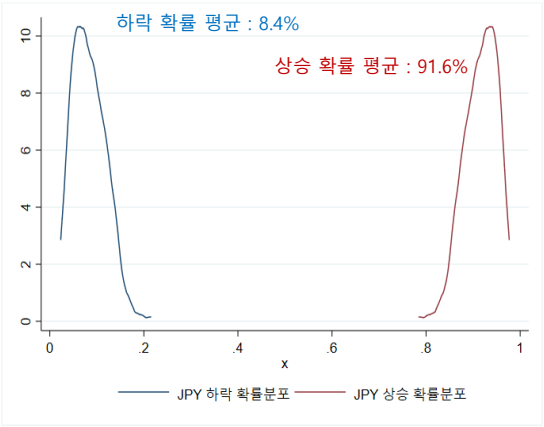
주: 신경망모형을 통해 필자 직접 분석

다음주 DXY 상승/하락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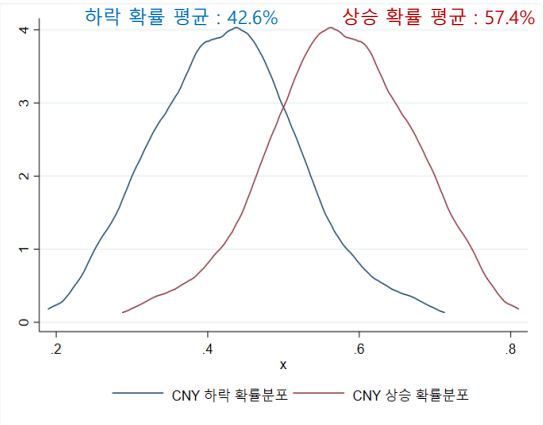
주: 신경망모형을 통해 필자 직접 분석

다음주 JPY 상승/하락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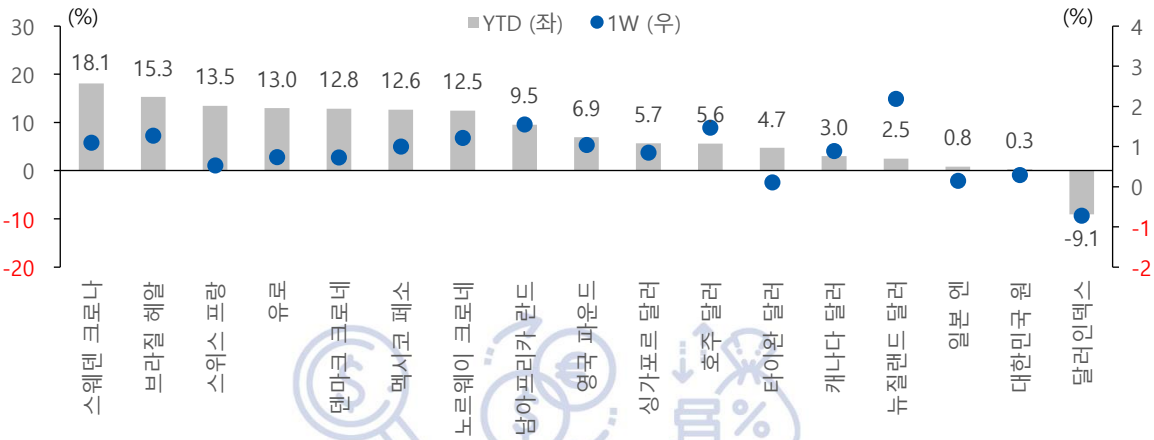
주: 신경망모형을 통해 필자 직접 분석

다음주 CNY 상승/하락 확률 분포



주: 신경망모형을 통해 필자 직접 분석

주요 통화 YTD & 주간 변동률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주: 2025년 11월 28일 종가 기준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김호정)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